

폭설에 빙판길...출·퇴근길 혼란 우려

오늘밤까지 최대 20cm 적설 아침 기온 영하 4도 기습한파 제설·블랙아이스 방지 비상

올 겨울 '눈 다운 눈'이 단 한 차례도 내리지 않은 광주·전남에 모처럼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특히 17일 광주·전남지역에 최고 20cm에 이르는 기습 폭설과 함께 강추위까지 예상돼 건강관리와 시설물 관리, 출근길과 퇴근길 교통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은 대기하층 1.5km 부근의 영하 12도 이하의 차가운

공기와 온화한 해기차(해수면 온도와 상층공기의 기온차)에 의해 발달한 눈 구름의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16일 예보했다. 눈은 17일 자정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광주·전남지역 5~10cm(최대 20cm)이다.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0도, 낮 최고기온은 0도~영상 3도로,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20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광주·전남지역은 예년과 달리 바람의 세기가 부족해 눈 구름이 서해쪽에 머물면서 지역에는 눈이 내리지 않았다.
17일 광주지역에 눈이 쌓일 경우 3.8cm가 쌓인 지난해 1월 31일 이후 1여년 만

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17일 오전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구름대 발달 정도와 대기 하층(약 1.5km 고도) 바람 변화에 따라 많은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오전까지는 영하 5도 분포로 기온이 낮게 예상되는 등 체감 추위가 더 클 것으로 예상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전남지역의 올 겨울 사실상 첫 눈이 폭설로 예보되면서 제설에도 비상이 걸렸다.
앞서 지난해 광주시는 겨울철 '도로 위 저승사자'로 불리는 상습결빙(블랙아이스) 구간을 38곳에서 결빙사고 다발지점 16곳을 추가해 총 54곳으로 확대 운영했다. 결빙 취약시간인 밤 11시부터 오전 7

시까지의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블랙아이스 발생가능성이 있을 경우 응급 제설작업 등 예방적 제설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도 1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최근 관계기관 점검 회의를 열어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제설 취약구간에는 제설장비와 자재를 사전에 배치하고, 한파로 결빙이 우려될 경우 선제적으로 제설제 살포와 안전요원 배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눈이 많이 쌓이면 붕괴 우려가 있는 적설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안전점검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더불어 출근길 직장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했다. /김현경 기자 young@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8	달뜨기	02:09
해질	18:16	달지기	12:33

첫 눈 반갑지만...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춥겠다.

광주	눈	-2/2	보성	눈	-4/1
목포	눈	-2/0	순천	눈	-1/3
여수	눈	0/3	영광	눈	-2/0
나주	눈	-2/2	진도	눈	-1/2
완도	눈	0/2	전주	눈	-3/1
구례	눈	-2/1	군산	눈	-2/1
강진	눈	-2/2	남원	눈	-3/0
해남	눈	-2/2	흑산도	눈	0/3
장성	눈	-2/2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남부	원바다	서~북서 3.0~5.0	서~북서 2.0~4.0	
	면바다(북)	서~북서 3.0~5.0	서~북서 3.0~5.0	
	면바다(남)	서~북서 3.0~5.0	서~북서 3.0~5.0	
남해서부	원바다	서~북서 2.0~4.0	서~북서 2.0~4.0	
	면바다(서)	서~북서 3.0~5.0	서~북서 3.0~5.0	
	면바다(동)	서~북서 2.0~4.0	서~북서 2.0~5.0	

◇ 생활지수

감기	보통
뇌졸중	보통
미세먼지	보통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1:01 13:56	08:44 20:50
여수	간조	만조
	09:55 22:02	03:45 15:41

◇ 주간 날씨

18(화)	19(수)	20(목)	21(금)	22(토)	23(일)	24(월)
☁	☁	☀	☁	☀	☀	☁
-2/6	-1/10	2/14	1/14	6/12	2/12	4/14



중국팬들이 그린 펭귄마을의 제이훙 벽화 16일 오후 광주시 남구 양림동 펭귄마을에 방탄소년단의 멤버 '제이훙'의 생일 축하벽화가 그려지고 있다. 애초 이번 벽화는 방탄소년단의 중국 아미팬들이 제이훙의 생일인 2월18일을 앞두고, 직접 광주를 찾아 그리려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자 스스로 포기했다. 하지만 중국팬들은 포기하지 않고 국내 광고대행 업체에 의뢰해 벽화 그리기를 진행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세금 수입액 체납 이사장 부부 광주교사노조 긴급조사 요구

광주의 한 사학법인 이사장 부부가 수십억원을 상습 체납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가 긴급조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교사노조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개인의 세금체납 문제지만, 체납액이 60억 원에 육박한다.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학 교법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인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회계는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교장과 교감 등 교원 임용과 관련한 잡음은 사실인지, 고급 외제차를 관용차로 구매하는 것은 타당한 지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 사의뢰하고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 법적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제가 된 사학법인의 이사장 A(72)씨와 A씨의 부인이자 직전 이사장인 B(71)씨의 지난해말 현재 국제 체납액은 A씨가 25억4200만원, B씨가 33억4900만원으로 부부 합산 58억9100만원에 이른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수수료 올리고 종량제 보급...광주 5개 자치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올 2% 감축 목표

광주지역 음식물 쓰레기가 늘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RFID) 종량제 보급 정책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등 사업장 배출량이 줄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광주지역 5개 자치구는 3월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계획을 세워놓았다.
16일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최근 4년 간(2015~2018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집계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하루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세로 돌아

서졌다.
광주지역 하루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537 t(2015년)→526 t(2016년)→501 t(2017년)으로 줄었다가 지난 2018년에는 509 t으로 다시 늘었다.
아파트의 경우 290.1 t(2015년)에서 273.6 t(2016년)→255.6 t(2017년)→252.4 t(2018년)으로 발생량이 꾸준히 감소한 반면, 단독·소형, 대형음식점 등 사업장 음식물 쓰레기는 늘었다.
공동주택 배출량 감소는 광주지역 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공동주택 종량제(RFID)를 보급, 감량을 유도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단독·소형음식점의 경우 하루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142.4 t(2015년)에서 145.9 t(2018년)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다량 배출 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도 하루 70.8 t(2017년)에서 78.0 t(2018년)으로 많아졌다.
광주지역 자치구는 지난해 245대를 추가로 보급하는 등 23만 945세대에 '공동주

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도입한 상태다. 광주 5개 자치구는 올해에도 4억 5000만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세대별종량제 225대를 들여놓을 계획이다. 광주 자치구는 2018년보다 하루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2% 감축한다는 입장이다.
5개 자치구는 3월부터 단독주택의 경우 8당 수수료를 46원→70원으로 올리고, 공동주택은 63원→95원, 음식점 70원→110원으로 인상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5·18 참상 알린 외국인들, 광주 다시 찾는다

40주년 기념행사 9명 초청
일인 9명 등이 오는 5월17일 광주를 찾아 40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이들은 5월19일 광주 서구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의 정의·평화를 위한 연대'를 주제로 열리는 광주아시아포럼의 '해의 기여자-기억과 연대' 분야 회의에 참석한다.
이 포럼에서 이들은 당시 광주에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상황들을 생생히 증언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송원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최고등급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신중년 인력양성 사업'이 취업률 100%를 달성,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이 사업 분야 S등급은 송원대가 유일하다.
이 과정은 지난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남구청의 지원을 받아 송원대 산학협력단이 운영한 과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광주 지역의 신중년을 대상으로 송원대
기계자동차 공학과에서 자동차 공학 이공과 실습, 검사 실무 및 산업체 특강까지 총 320시간의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해 전문 라이선스 취득 및 취업까지 지원하는 과정이다.
올해 교육과정은 2020년 3월 중 교육생을 모집하며, 자동차 관련 업종 경험자와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응시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